東洋學 第92輯(2023年 7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16국 · 北魏時代 梯形棺

- 鮮卑葬俗의 확산과 수용 -

최 진 열*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국시대와 北魏時代 鮮卑人들의 독특한 葬俗인 梯形棺의 분포와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16국 시대 梯形棺은 遼西 · 遼東(43座), 鄴 지역(4座), 洛陽(1座), 長安과 그 주변 지역(13座, 19棺), 河西回廊(2座)에서 출토되었다. 北魏平城時代에 수도인 平城에 梯形棺이 다수 출현하였고 盛樂 일대(현재의 呼和浩特 美岱村 北魏初期 무덤)과 夏州, 高平鎭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北魏洛陽時代에 수도 洛陽(3件)과 平城(1件), 弘農郡(1件), 河東郡(4件), 鄕郡(1件), 京兆郡(2件)에서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16국시대에 漢人의 무덤은 11座였고, 北魏洛陽時代에 8座(梯形石棺을 포함하면 9座)였다. 16국시대 後燕의 관리 崔遹과 北燕의 王室 일족인 馮素佛의 무덤에서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漢人들이 鮮卑의 葬俗인 梯形棺으로 매장한 사실은 일부 지배층 漢人이 鮮卑文化를 받아들였던 증거이다.

본고는 漢族이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十六國 · 北魏時代에 이민족만 일방적으로 漢文化를 받아들였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華北 지역의 漢族도 유목문화(鮮卑文化)를 수용했던 실례를 발견하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梯形棺, 崔遹, 馮素佛, 裴經, 朱氏 가족, 方興, 다문화 공존

▌목 차▐

Ⅰ. 서 론
Ⅱ. 十六國時代 梯形棺과 지역 분포
Ⅲ. 北魏時代 梯形棺
Ⅳ. 時代未詳 梯形棺
Ⅴ. 결 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d-choi@daum.net

Ⅰ. 서 론

시체의 머리 부분이 넓고 다리 부분이 짧은 역사다리꼴 모양의 棺인 梯形棺은 鮮卑의 고유 葬俗이라고 한다. 梯形木棺은 憂仙洞, 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葬,[1] 科右中旗北瑪尼吐鮮卑墓葬,[2] 哲里木盟舍根鮮卑墓葬,[3] 遼寧義縣保安寺鮮卑墓葬,[4] 科左後旗新勝屯鮮卑墓地,[5] 朝陽王子墳山墓群,[6] 北票房身村晉墓,[7] 大安漁場鮮卑墓地[8] 등 내몽골 동북 지역부터 흥안령 산맥을 따라 분포하며 拉布達林,[9] 札賚諾爾,[10] 興和縣叭溝村鮮卑墓,[11] 和林格爾西溝子村北魏墓,[12] 呼和浩特美岱村北魏墓[13]에서도 발견되었다. 拓跋部가 後燕의 河北 지역을 빼앗고 수도로 정한 平城에서도 梯形木棺이 다수 발견되었다.[14] 梯形棺은 拓跋部뿐만 아니라 慕容部가 웅거했던 遼西·遼東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필자는 16국시대와 北魏時代 발굴보고서를 분석하며 梯形木棺 또는 梯形石棺의 발굴 기록을 분석하면서 烏丸·鮮卑의 고유 葬俗인 梯形木棺이 일부 漢人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상당수 발굴보고서에서 棺의 모양이나 크기를 기록하지 않아서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梯形木棺을 둔 무덤의 種族, 연대, 지역 등을 분석하면 鮮卑 葬俗의 영향 및 보급, 鮮卑人의 이동, 鮮卑文化의 전파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16국·北魏時代 華北 지역의 梯形棺을 통해 鮮卑 풍속의 유지 또는 수용 양상을 분석한다.

1장에서 16국 시대 梯形棺의 출토 상황을 분석한다. 2장에서 北魏時代 梯形棺을 北魏平城時代와 北魏洛陽時代, 시대를 알 수 없는 梯形棺으로 나누어 梯形棺의 분포와 수용 대상, 분포 지역 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 지역 분포와 種族별 사용 빈도 등을 기초로 梯形棺의 존재의의 및 특징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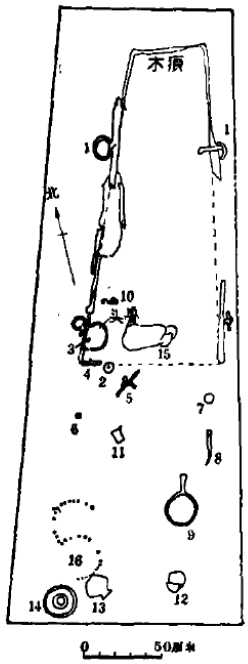
---

1) 張柏忠,「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葬」,『考古』1989-5, 1989, 430~438쪽.
2) 錢玉成·孟建仁,「科右中旗北瑪尼吐鮮卑墓葬」, 李逸友·魏堅 編,『內蒙古文物考古文集』第一輯,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397쪽.
3) 張柏忠,「哲里木盟發現的鮮卑遺存」,『文物』1981-2, 1981, 9~15쪽.
4) 劉謙,「遼寧義縣保安寺發現的古代墓葬」,『考古』1963-1, 1963, 53쪽.
5) 田立坤,「科左後旗新勝屯鮮卑墓地調查」,『文物』1997-11, 1997, 49~50쪽.
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朝陽王子墳山墓群1987年·1990年度考古發掘的主要收穫」,『文物』1997-11, 1997, 4~18쪽.
7) 陳大爲,「遼寧北票房身村晉墓發掘簡報」,『考古』1960-1, 1960, 24~26쪽.
8) 吉林省博物館文物隊·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大安漁場古代墓地」,『考古』1975-6, 1975, 356~362쪽.
9) 趙越,「內蒙古額右旗拉布達林發現鮮卑墓」,『考古』1990-10, 1990;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等,「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鮮卑墓群發掘簡報」,『內蒙古文物考古文集』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10) 鄭隆,「內蒙古札賚諾爾古墓群調查記」,『文物』1961-9, 1961; 內蒙古文物工作隊,「內蒙古札賚諾爾古墓群發掘簡報」,『考古』1961-12, 1961; 王成,「札賚諾爾圈河古墓清理簡報」,『北方文物』1987-3, 198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札賚諾爾古墓群1986年清理發掘報告」,『內蒙古文物考古文集』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11) 興和縣文物普查隊,「興和縣叭溝村鮮卑墓」,『內蒙古文物考古』1990-1·2, 1990.
12) 烏蘭察布盟文物工作站,「內蒙古和林格爾西溝子村北魏墓」,『文物』1992-8, 1992.
13) 內蒙古文物工作隊,「內蒙古呼和浩特美岱村北魏墓」,『考古』1962-2, 1962.
14) 吳松巖,「盛樂·平城地區北魏鮮卑·漢人墓葬比較分析」,『北方文物』2008-4, 2008, 23오른쪽;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博物館 編著,『大同南郊北魏墓群』, 北京: 科學出版社, 2006, 499~500쪽; 趙菲,「內蒙古中部地區的北魏墓葬」,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42쪽; 商春芳,「洛陽兩座鮮卑墓葬的檢討」,『石河子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0-2, 2016, 16왼쪽; 張志忠,「大同雲波路北魏石槨墓解讀」,『收藏家』2019-9, 2019, 105왼쪽~105오른쪽; 何培,「唐代以前的梯形棺」, 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5, 22~29쪽.

Ⅱ. 十六國時代 梯形棺과 지역 분포

선행연구에 따르면 梯形棺은 鮮卑와 烏丸의 葬俗이며 이들이 살았고 활동했던 내몽골 동북쪽과 중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후자는 拓跋部의 활동지역이었다.[15]

慕容部가 활동한 遼西 · 遼東 지역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田立坤의 「三燕文化墓葬的類型與分期」에 따르면 현재 자료가 발표되고 形制가 분명하며 출토 유물이 명확한 三燕文化 무덤은 60座이며, 그중 棺木이 남아 있는 43座는 모두 大頭小尾式의 梯形棺이다.[16] 이 가운데 1980년 9월에 발굴된 崔遹의 무덤[17]이 주목된다.



图四　随葬器物分布图
1.铁棺环 2.铁镜 3.银环
4.银饰形器 5.铜弩机
6.货泉 7.五铢 8.铜刀
9.铜魁 10.铜带钩 11.石砚 12.陶钵 13、14.陶罐
15.石灰枕 16.残漆器

〈그림 1〉 崔遹 무덤 부장품 분포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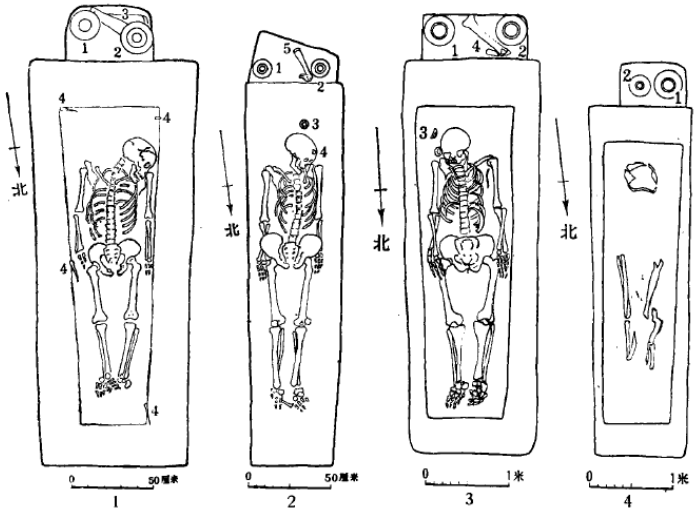
石槨 안 북쪽에 있던 木棺은 前寬後窄이며 南高北低의 梯形棺이었다.[19] 崔遹 무덤의 墓表에 "燕建興十年昌黎太守淸河武城崔遹"라고 기록되었다.[20] 建興은 後燕의 군주 慕容垂 재위 시기의 연호이며 建興 10년은 395년이다. 이름 앞의 '淸河武城'은 崔遹의 본적이다. 즉 崔遹은 淸河郡 (東)武城縣 출신이며 昌黎太守로 재직하다가 建興 10년(395)에 죽었다는 뜻이다. 즉 崔遹은 훗날 北朝 · 隋唐時代 최고 문벌의 하나인 淸河崔氏 출신인데, 鮮卑 葬俗인 梯形棺으로 매장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崔遹 무덤의 槨 위에서 목탄이 발견되었는데 무덤 안에서 불을 질렀던 흔적이다. 이는 부장품을 불태우는 毁器의 풍습이며, 『後漢書』「烏桓鮮卑列傳」에서 죽은 사람의 乘馬衣物을 불사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21] 鮮卑의 습속이다.[22] 石灰枕의 사용도 鮮卑 葬俗이었다.[23] 따라서 後燕의 漢人官僚였던 崔遹은 鮮卑의 葬俗에 따라

15)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等, 앞의 책, 2006, 499~500쪽.
16)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等, 앞의 책, 2006, 499~500쪽; 孫危, 『鮮卑考古學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7, 109쪽; 穆崟臣, 「"同化"與"異化": 三燕時期遼西走廊的民族融合與文化交流」,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5-6, 2014, 56왼쪽.
17) 陳大爲 · 李宇峰, 앞의 논문, 1982, 270왼쪽.
18) 陳大爲 · 李宇峰, 「遼寧朝陽後燕崔遹墓的發現」, 『考古』 1982-3, 1982, 271왼쪽, 圖四 隨葬器物分布圖.
19) 陳大爲 · 李宇峰, 위의 논문, 1982, 271오른쪽; 何培, 위의 논문, 2010, 25쪽.
20) 陳大爲 · 李宇峰, 위의 논문, 1982, 273왼쪽.
21) 『後漢書』 卷90 「烏桓傳」, 2980쪽, "俗貴兵死, 斂屍以棺, 有哭泣之哀, 至葬則歌舞相送. 肥養一犬, 以彩繩纏牽, 并取死者所乘馬衣物, 皆燒而送之, 言以屬累犬, 使護死者神靈歸赤山. 赤山在遼東西北數千里, 如中國人死者魂神歸岱山也. 敬鬼神, 祠天地日月星辰山川及先大人有健名者. 祠用牛羊, 畢皆燒之."
22) 朴文英, 「從馮素佛墓出土紡織品痕迹考察三燕時期遼寧地區的絲織業」, 遼寧省博物館 編, 『北燕馮素佛墓』, 北京: 文物出版社, 2015(原載 「從馮素佛墓出土紡織品痕迹考察三燕時期遼寧地區的絲織業」, 『遼寧省博物館館刊(2011)』, 遼海出版社, 2011), 271~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北燕의 君主 馮跋의 아우 馮素佛 무덤의 棺槨도 앞이 높고 넓으며 뒤가 낮고 좁은 梯形棺이다. 또 머리가 동쪽을 향했는데 이는 烏丸과 鮮卑의 풍속이다. 馮素佛一號墓에서 龕臺 안의 大壺와 大罐 위에 소의 갈비뼈와 腿骨이 발견되었는데 원래 두 덩어리의 祭肉이다. 이는 烏丸과 鮮卑 등의 매장 풍습이었다.[24] 馮素佛墓의 妻로 추정되는 死者의 무덤에서도 石灰枕을 사용하였다.[25] 『魏書』「海夷馮跋傳」에서 馮跋은 "遂同夷俗"이라고 기록하여[26] 馮跋 일족이 혈통상 漢人이었지만 慕容部의 鮮卑 풍속을 따랐다고 기록하였다. 馮素佛墓의 梯形棺, 머리의 동향, 소 등 고기 제사 등 실제로 鮮卑의 葬俗을 따랐다는 『魏書』의 기록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後趙와 前燕의 수도였던 鄴에 해당하는 安陽 殷墟西區의 孝民屯 남쪽에서 1973년 겨울에서 1974년 여름까지 무덤을 발굴했는데, 이 가운데 十六國時代의 무덤이 있었다. 이 가운데 154號墓,[27] 165號墓,[28] 196號墓[29] 등은 梯形棺이다.



〈그림 2〉 安陽 孝民屯 16국 무덤 墓葬平面圖[30]

272쪽. 이는 烏丸과 鮮卑뿐만 아니라 匈奴, 扶餘, 高句麗, 渤海 등의 葬俗이다(張英, 「我國東北古代民族"毁器"習俗」, 『北方文物』 1990-3, 1990).

23) 喬梁, 「山西原平北賈鋪東漢墓葬所見的北方草原文化因素」, 『考古與文物』 2015-2, 2015, 94오른쪽.

24) 遼寧省博物館 編, 『北燕馮素佛墓』, 北京: 文物出版社, 2015, 108~109쪽; 何培, 앞의 논문, 2010, 25쪽.

25) 喬梁, 앞의 논문, 2015, 94오른쪽.

26) 『魏書』 卷97 「海夷馮跋傳」, 2126쪽, "既家昌黎, 遂同夷俗."

27) 板灰 흔적을 보면 木棺은 남북향이며 남쪽이 넓고 북쪽은 좁으며 길이는 2m, 남쪽 너비는 0.56m, 북쪽 너비는 0.5m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위의 논문, 1983, 501오른쪽). 이는 梯形棺임을 뜻한다.

28) 木棺 1具가 있는데 이미 썩었고 鐵棺釘 4枚와 흑색 板灰가 있고 板灰 흔적은 길이 1.95m, 남쪽 너비 0.59m, 북쪽 너비 0.4m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위의 논문, 1983, 506오른쪽). 기술한 棺의 모양을 보면 梯形棺임을 알 수 있다.

29) 木棺은 길이 1.9m, 남북 너비 0.6m, 북쪽 너비 0.46m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위의 논문, 1983, 509왼쪽). 이는 梯形棺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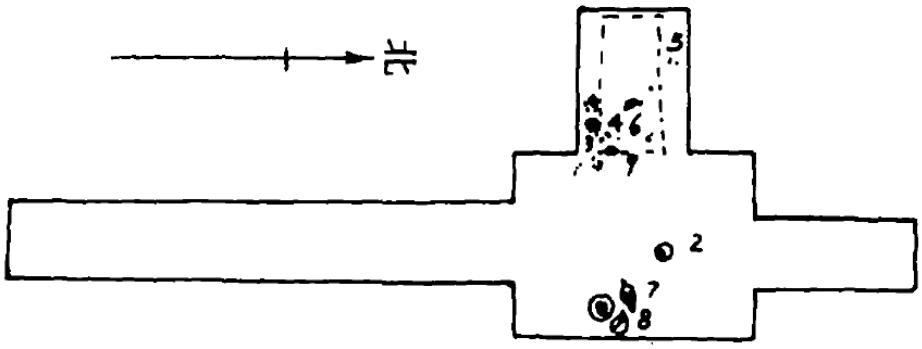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발굴보고서에서 梯形棺으로 묘사하지 않았던 197號墓도 梯形棺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153號墓의 木棺 안에 鎏金銅馬具 1副가 있었고 木棺 밖 서북쪽에서 馬頭骨, 狗頭骨, 狗爪骨이 있었다.[31] 馬具는 墓主가 생전에 말타기를 좋아했음을 시사하며 각종 동물뼈는 말과 개를 순장했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墓主 일족이 鮮卑의 葬俗에 따라 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머지 4墓의 小龕 안에 모두 牛骨(腿骨, 肋骨 또는 肩胛骨)을 순장하였다. 이러한 순장 풍습은 內蒙古呼倫貝爾盟陳巴爾虎旗完工[32]과 新巴爾虎旗札賚諾爾墓群,[33] 南楊家營子墓[34]의 葬俗과 일치한다. 이를 근거로 安陽孝民屯의 무덤 다섯 기가 鮮卑人의 무덤이거나 최소한 鮮卑의 영향을 받고 鮮卑人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간주된다.[35] 이 유적은 鄴 주변에 鮮卑의 풍속을 따르는 鮮卑人 또는 鮮卑化한 漢人이 살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최소한 黃河 중하류 지역으로 이주한 慕容部 휘하의 鮮卑人들이 중국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洛陽에서도 梯形墓가 발견되었다. 1986년 12월에 발굴된 무덤(CM1)의 棺은 長方梯形이며, 南寬北窄의 梯形棺이었다.[36]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이 무덤의 축조 연대는 16국시대이다.[37]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무덤에 불에 그을린 2개의 腿骨이 있었다.[38] 발굴보고서에서 2次葬이 존재했다고 추측하였지만, 실제로는 鮮卑의 燒物葬 習俗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內蒙古 科右中旗 北瑪尼吐墓群에 대해 100餘 座의 무덤에는 대량 목탄이 출토되었는데, 骨頭는 이미 불타 없어졌다.[39] 慕容鮮卑 시기로 확정된 朝陽十二臺磚廠88M1에서 발견된 焚燒 흔적을 慕容鮮卑의 葬俗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0] 安陽孝民屯154號墓에서도 頭骨과 脊椎骨 아래에서 흑색 灰塵이 발견되었다.[41] 이 燒器의 습속은 유목민이 희생을 죽여 묻는 습속이다.[42] 요컨대 洛陽軸承廠十六國磚棺墓는 梯形棺과 燒物葬 등 鮮卑의 葬俗을 따랐다. 다만 墓主의 種族을 알 수 있는 文字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長安을 중심으로 한 關中 지역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1997년 발굴된 56座 가운데 後趙墓 1座(M7)가 있다. M7은 長斜坡墓道土洞墓이며, 墓道, 前室, 後室, 側室의 몇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木棺 흔적은 길이 1.8m, 너비 0.6~0.8m이다. 부장품에 雙耳陶罐 1件, 陶罐 1件, 錢幣 37件, 釉陶鴨 1件, 釉陶鷄 1件, 銅鏡 1

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安陽孝民屯晉墓發掘報告」, 『考古』 1983-6, 1983, 507쪽, 圖九 墓葬平面圖.
3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위의 논문, 1983, 501오른쪽.
32) 潘行榮,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葬」, 『考古』 1962-11, 1962;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淸理簡報」, 『考古』 1965-6, 1965.
33) 內蒙古文物工作隊, 「札賚諾爾古墓群發掘簡報」, 『考古』 1961-12, 1961.
3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工作隊, 「內蒙古巴林左旗南楊家營子的遺址和墓葬」, 『考古』 1964-1, 1964.
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安陽孝民屯晉墓發掘報告」, 510오른쪽; 張小舟, 「北方地區魏晉十六國墓葬的分區與分期」, 『考古學報』 1987-1, 1987, 19~43쪽; 田立坤, 「三燕文化遺存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 1991-1, 1991, 14~22쪽.
36) 棺의 길이는 1.4m, 남쪽 너비 0.19m, 북쪽 너비 0.26m, 높이 0.65m이다(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洛陽軸承廠十六國磚棺墓淸理簡報」, 『中原文物』 1987-3, 1987, 35왼쪽). 그림은 圖一 磚棺墓平 · 剖面圖 참조.
37) 商春芳, 앞의 논문, 2016, 15왼쪽~15오른쪽.
38)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앞의 논문, 1987, 35왼쪽~36오른쪽.
39) 錢玉成 · 孟建仁, 「科右中旗北瑪尼吐鮮卑墓群」,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北京: 中國大百科全書, 1994.
4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十二臺鄕磚廠88M1發掘簡報」, 『文物』 1997-11, 1997.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앞의 논문, 1983, 501왼쪽~511오른쪽.
42) 商春芳, 앞의 논문, 2016, 17왼쪽.

件, 銅削 1件, 鐵劍 1件, 銅弩機 1件, 銀釵 1件이 있다.[43] 발굴보고서에 기록된 木棺은 너비의 차이를 보면 梯形棺임이 분명하다. 이는 〈그림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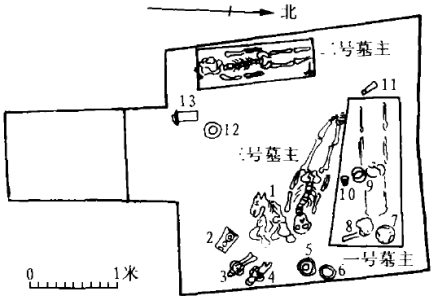
〈그림 3〉 西安後趙墓(M7)平面圖[44]

1999년 3~9월 발굴한 咸陽市 北郊 文林小區의 9座 前秦墓의 葬具는 木棺이며 모두 梯形이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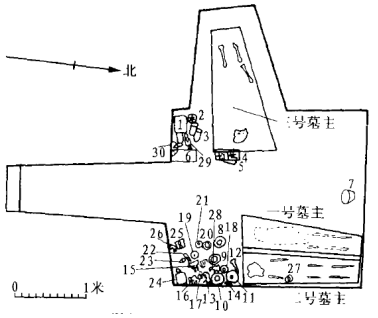
咸陽市 北郊 文林小區 前秦墓 가운데 磚誌는 6塊이며, M49, M20, M35, M44 등 4座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朱氏 가족묘임이 확인된다.[46] 朱卿 등 이름을 보면 漢人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부 漢人들이 鮮卑 葬俗인 梯形棺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1월 발굴된 西杵高速M29의 木棺은 모두 길이 2.2m, 남쪽 너비 0.5m, 북쪽 너비 0.65m[47]인 梯形木棺이다.[48] 咸陽市 文林路 남쪽의 頭道塬 위에 있는 鐵一局三處(현재 이름은 中鐵七局三處)에서 발견된 1號墓(M1)의 세 개의 棺,[49] 3號墓(M3)의 세 개의 棺[50]은 모두 梯形木棺이다. M1에서 출토된 2塊의 刻字靑磚의 上面 문자는 "丁好思大", "字 思祖墓"이다. "丁好"는 人名일 것이다. M3에서 출토된 2枚 印章에서 墓主의 이름이 "李休"였음을 알 수 있다.[51] 발굴보고서에서 M1의 墓主는 16국시대에 關中으로 진입한 氐·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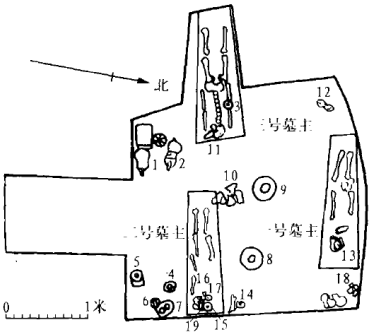
43)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財政幹部培訓中心漢·後趙墓發掘簡報」, 『文博』 1997-6, 1997, 34오른쪽~35왼쪽.
44)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위의 논문 1997, 35쪽.
45)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陝西咸陽市文林小區前秦朱氏家族墓的發掘」, 『考古』 2005-4, 2005, 42왼쪽.
46)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a), 61오른쪽~62오른쪽.
47)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南郊淸理兩座十六國墓葬」, 『文博』 2011-1, 2011, 4왼쪽~4오른쪽.
48) 그림은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위의 논문, 2011, 4쪽, 圖二 西杵高速南段M29平剖面圖 참조.
49) 北側室의 木棺은 길이 2.1m, 남북 너비 0.59m, 북쪽 너비 0.5m이며 안에 1具의 여성 인골이 있다. 南側室의 木棺은 길이 1.85m, 남쪽 너비 0.75m, 북쪽 너비 1m, 棺板의 두께 4~5㎝이고 안에 2具의 인골이 있는데 남녀 각각 1具이다. 後室 가운데 偏南에 1副 木棺이 있는데 길이 2.3m, 서쪽 너비 0.55m, 동쪽 너비 0.4m, 관편의 두께 5~8㎝이고 안에 1具의 남성 인골이 있다(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陝西咸陽市頭道塬十六國墓葬」, 『考古』 2005-6, 2005, 44왼쪽~44오른쪽). 세 棺 모두 梯形棺임을 알 수 있다(그림은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b), 45쪽, 圖三 M1 平·剖面圖 참조).
50) 南側棺은 길이 1.9m, 너비 0.56~0.65m이며 棺 안에 동부에 靑磚 3塊가 있는데, 인체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중간의 棺은 길이 2m, 너비 0.55~0.75m이며 棺板 두께는 10㎝이다. 棺底에 白灰가 있고 棺 안 東端에 靑磚 1塊가 있다. 北側棺은 길이 1.88m, 너비 0.48~0.62m이(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b), 49오른쪽).
51)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b), 56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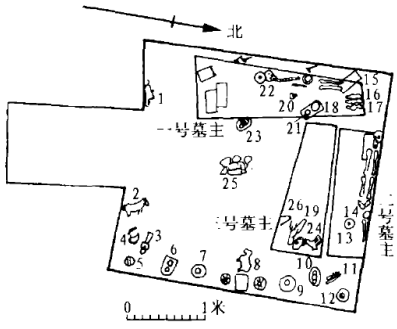
〈그림 4〉 M69墓室平面圖[57]



〈그림 5〉 M44墓室平面圖[58]



〈그림 6〉 M61墓室平面圖[59]



〈그림 7〉 M113墓室平面圖[60]

등 이민족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M1과 M2의 시대는 M3보다 이르며 대체로 16국 초기 漢 또는 後趙 시기이다.[52] 그러나 이름만 보면 陝西咸陽市頭道塬十六國墓의 M3은 漢人의 무덤으로 보이며 鮮卑 葬俗인 梯形棺으로 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咸陽市 渭城區 正陽鎭 柏家咀村 북쪽 二道塬에서 발견된 7座 十六國時代의 무덤 가운데 2007XJGM66의 棺1,[53] 棺2,[54] 棺3[55]은 梯形棺이다. 이 무덤의 부장품을 비교하면 16국의 前趙와 後趙 시대로 추측된다.[56]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나 본적 등의 자료는 출토되지 않아 墓主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

52)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b), 55오른쪽~56왼쪽.
53) 棺板의 두께는 不詳. 길이 2.1m, 前檔(서) 너비 0.7m, 後檔(동) 너비 0.6m이다(陝西省考古研究院, 「西安咸陽國際機場專用高速公路十六國墓發掘簡報」, 『文博』 2009-9, 2009, 4왼쪽). 이는 역사다꼴이며 梯形木棺이다.
54) 길이 2.1m, 前檔(남) 너비 0.7m, 後檔(북) 너비 0.6m, 棺板 두께 0.08m이다(陝西省考古研究院, 앞의 논문, 2009, 4왼쪽). 이는 梯形棺의 특징이다.
55) 크기와 棺板 두께는 棺2과 거의 같다(陝西省考古研究院, 앞의 논문, 2009, 4왼쪽). 역시 梯形棺이다.
56) 陝西省考古研究院, 앞의 논문, 2009, 11오른쪽.
57)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a), 42왼쪽, 圖四 M69墓室平面圖.
58)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a), 43오른쪽, 圖七 M44墓室平面圖.
59)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a), 47왼쪽, 圖一四 M61墓室平面圖.
60)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05(a), 49왼쪽, 圖一四 M61墓室平面圖.

다음으로 河西回廊 지역을 살펴보자. 2001년 6・7월에 발굴한 甘肅省 高臺縣 駱駝城遺址와 墓葬區의 M4에서 발견된 木棺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 梯形棺이다.[61] 발굴보고서 작성자는 M4에서 출토된 유물이 적고 조악하여 M4의 墓主人은 貧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62] 현재의 甘肅省 高臺縣은 16국시대에 建康郡이었다. 네 개의 무덤 가운데 한 곳에서만 梯形木棺이 발견되었는데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敦煌縣 동남쪽 佛爺廟灣에서 발굴된 M1의 墓室 남북 양측에 棺 하나씩 있다. 남성을 매장한 남쪽의 棺은 길이 250㎝, 위의 너비 60㎝, 아래 너비 70㎝, 棺板의 두께 8㎝이다. 여성을 매장한 북쪽의 관 길이 229㎝, 위의 너비 65㎝, 아래 너비 60㎝이다. 두 관 모두 梯形棺임을 알 수 있다. M2의 棺의 길이는 220㎝, 앞의 너비 55㎝, 뒤의 너비 40㎝, 앞의 殘高 44㎝, 뒤의 殘高 25㎝, 棺板의 두께는 6㎝인 梯形棺이다.[63] M1의 남쪽 棺 M1: 32-34 3件의 紀年은 "庚子六年正月水未朔"인데 "庚子六年"은 建初元年(405)이며 西涼 시기에 속한다.[64] 河西回廊에서 발견된 梯形棺의 수는 적다.

拓跋部 등 陰山・漠南 지역(현재의 내몽골자치구)을 제외하면, 梯形木棺은 遼西・遼東 지역에서 43座, 鄴 지역(安陽 孝民屯)에서 4座, 洛陽에서 1座, 長安과 그 주변에서 14座(20棺), 河西回廊에서 2座가 출토되었다.[65] 遼西 지역에서 출토된 崔遹墓와 馮素佛墓, 長安 지역의 朱氏家族墓 등을 제외하면 墓主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무덤의 수가 적다. 그러나 변경인 遼西・遼東 지역뿐만 아니라 十六國時代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수도였던 鄴과 長安, 西晉의 수도였던 洛陽 등 華北의 내지에서도 鮮卑葬俗인 梯形木棺이 발견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安陽 孝民屯 무덤들의 墓主가 鮮卑人이었다면 前燕을 세웠던 慕容部 사람들이 中原에서도 漢文化에 동화되기는커녕 자신의 고유한 매장 풍속을 유지했다고 해석된다. 반대로 墓主가 漢人이라면 鮮卑의 풍속을 받아들인 예로 해석된다. 그리고 長安 지역(渭水 건너 咸陽 포함)에서 16국시대 梯形木棺의 21.9%(棺의 수로는 28.6%)에 해당하는 14座(20棺)이 출토되었다. 이는 慕容部의 본거지였던 遼西・遼東라는 변경을 제외하고 秦漢時代의 수도였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華北 지역에서 가장 많다. 특히 咸陽市 北郊 文林小區의 9座 前秦墓, 즉 朱氏家族墓과 墓主가 漢人으로 추측되는 咸陽市 頭道塬의 3號墓(M3)[66]의 세 棺 모두 梯形木棺이었다. 즉 10座의 무덤에서 출토된 12棺의 漢人이 梯形木棺을 사용했는데 長安 지역의 50%를 차지한다(棺의 수로 계산하면 60%). 최소한 長安을 포함한 關中 지역에서 鮮卑葬俗인 梯形木棺을 사용한 漢人들이 많았던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長安이 前趙, 前秦, 後秦의 수도였고 匈奴, 氐, 羌 등 다양한 種族이 활동했고 일부 漢人들이 鮮卑 葬俗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前秦의 군주 苻堅은 前燕을 정복한

61) 棺의 길이 2.08m, 높이 0.6m, 頭板의 밖 너비 0.6m, 底板 밖 너비 0.45m, 棺蓋의 길이 2.32m, 너비 0.65m이다(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高臺縣博物館, 「甘肅高臺縣駱駝城墓葬的發掘」, 『考古』 2003-6, 2003, 49오른쪽~50왼쪽 및 49오른쪽, 圖六 M4平・剖面圖).

62)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高臺縣博物館, 위의 논문, 2003, 51오른쪽.

63)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高臺縣博物館, 위의 논문, 2003, 51오른쪽~52왼쪽; 52오른쪽; 53쪽 圖六 M1墓室內部器物分布圖.

64) 甘肅省敦煌縣博物館, 「敦煌佛爺廟灣五涼時期墓葬發掘簡報」, 『文物』 1983-10, 1983, 58오른쪽.

65) 魏晉南北朝時代의 葬具는 梯形棺 이외에 長方形棺가 있었다. 長方形棺의 무덤은 20곳, 약 43座이며, 長方形棺과 梯形棺이 병존한 무덤이 田弘墓, 甘肅高臺縣駱駝城墓葬, 王子墳山墓群, 南京仙鶴觀東晉墓 4곳이 있다(何培, 앞의 논문, 2010, 26쪽).

66) 2매의 印章에서 墓主의 이름이 李休임을 알 수 있다(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2005(b), 56왼쪽). 이름을 보면 漢人(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 370년에 前燕의 王公과 鮮卑 4萬餘戶를 長安으로 遷徙하였고[67] 다음 해에 關東 豪傑과 雜夷 15萬戶를 關中으로 이주시켰다.[68] 이때 이주한 鮮卑 등 梯形棺을 사용하는 이들의 葬俗이 다른 이민족이나 漢人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69]

Ⅲ. 北魏時代 梯形棺

1. 北魏平城時代 梯形棺

道武帝가 平城이 수도를 정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平城에 거주하였다. 현재 山西省 大同市에서 많은 무덤이 발굴되었다. 南郊北魏墓群에서 발견된 무덤 167기의 절대 다수는 梯形木棺이었다.[70] 최근 大同 御東新區와 城南에서 발견된 2천 기에 가까운 北魏墓가 발굴되었는데 90% 이상 梯形木棺을 사용하였다. 拓跋部가 거주한 陰山 · 漠南 일대에서 발견되는 梯形木棺이 平城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71] 齊家坡墓와 下深井墓, 湖東一號墓의 葬具도 梯形木棺이다.[72] 北魏大同二電廠北魏墓群 27座 가운데 M17의 木棺 길이는 1.0m, 너비 0.4~0.68m인 梯形木棺이었다.[73] M33의 木棺 길이 2m, 너비 0.4~0.7m이며 梯形棺이다.[74] 多室墓인 M36에서 梯形木板이 있다.[75] 2013년 5~7월에 발굴한 御昌佳園의 北魏墓群 M113의 墓室에 있는 木質單棺은 앞이 크고 뒤가 좁은 梯形이며, 길이 2.1m, 너비 055~0.8m, 殘高 2m이다.[76] 이 또한 梯形棺이다.[77]

---

67) 『晉書』 卷111 「慕容暐載記」, 2858쪽, "堅徙暐及其王公已下幷鮮卑四萬餘戶于長安, 封暐新興侯, 署爲尙書."; 『十六國春秋輯補』 (崔鴻 撰, 湯球 輯補, 王魯一 · 王立華 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卷29 「前燕錄」 7, 228~229쪽.

68) 『晉書』 卷113 「苻堅載記」上, 2893쪽, "徙關東豪傑及諸雜夷十萬戶於關中, 處烏丸雜類於馮翊 · 北地, 丁零翟斌于新安, 徙陳留 · 東阿萬戶以實靑州. 諸因亂流移, 避仇遠徙, 欲還舊業者, 悉聽之."; 『資治通鑑』 卷103 「晉紀」25 簡文帝咸安元年正月條, 3243쪽, "秦王堅徙關東豪傑及雜夷十五萬戶於關中, 處烏桓於馮翊 · 北地, 丁零翟斌於新安 · 滻池. 諸因亂流移 · 欲還舊業者, 悉聽之."

69) 다만 河西回廊 지역에서 발견된 梯形棺은 숫자가 적고 모양상 鮮卑 葬俗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拓跋部에서 분리되어 河西回廊으로 이주한 禿跋部가 河西回廊의 涼州에서 활동하였고, 16국시대에 南涼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北涼에 망한 이후인 北魏 太武帝 太延 5년(439) 당시에도 河西回廊 일대에 鮮卑人이 거주하였다(『魏書』 卷4上 「世祖紀」上 太延五年冬十月條, 90쪽, "辛酉, 車駕東還, 徙涼州民三萬餘家于京師. 留驃騎大將軍 · 樂平王丕, 征西將軍賀多羅鎭涼州. 癸亥, 遣張掖王禿髮保周諭諸部鮮卑, 保周因率諸部叛於張掖."). 따라서 河西回廊에 살던 일부 漢人들이 鮮卑人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梯形棺의 사례가 적어서 본문에서는 판단을 보류하였다.

70)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等, 앞의 책, 2006, 498~499쪽.

71) 張志忠, 「大同雲波路北魏石槨墓解讀」, 『收藏家』 2019-9, 2019, 105왼쪽~105오른쪽.

72) 吳松巖, 「盛樂 · 平城地區北魏鮮卑 · 漢人墓葬比較分析」, 27왼쪽~27오른쪽.

73) 大同市考古研究所, 「北魏大同二電廠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 2019-8, 2019, 15왼쪽; 16오른쪽. 圖三 M17 平 · 剖面圖를 보면 梯形木棺임을 알 수 있다(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9, 16왼쪽).

74) 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9, 16오른쪽. 그림을 보면 역사다리꼴의 梯形木棺임이 분명하다(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9, 24오른쪽, 圖一九 M36平面圖).

75) 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9, 24오른쪽~26왼쪽.

76)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御東新區御昌佳園北魏墓M113發掘簡報」, 『考古與文物』 2021-4, 2021, 39왼쪽~41왼쪽.

77) 사진을 보면 梯形木棺임을 알 수 있다(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21, 41위쪽, 圖二 M113墓室 참조).

梯形棺이 출토된 무덤에서 墓主의 이름과 本籍 등을 알 수 있는 墓誌銘이나 墓磚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墓主의 種族을 알 수 없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漢人의 梯形棺도 발견되었다. 먼저 梁拔胡 무덤이다. 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 가운데 M9의 墓室 가운데에 木棺 2具가 있었는데 서쪽 棺의 길이는 1.9m, 앞의 너비 0.6m, 뒤의 너비 0.4m이다. 동쪽 棺은 길이 1.94m, 앞의 너비 0.7m, 뒤의 너비 0.4m이다.[78] 발굴보고서 M9平·剖面圖[7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棺 모두 梯形棺이었다. 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 M9의 墓主는 題記에 따르면 梁拔胡이다.[80] 孝文帝의 胡姓 改姓 이전에 죽었으므로 '梁'은 중국 姓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關中 지역의 梯形棺을 살펴보자. 西安市 동쪽의 幸福林帶 건설공사 때문에 발굴된 北魏墓[81]인 무덤 M3은 부부가 다른 관에 매장된 합장묘(雙人異棺合葬)이며, 두 棺 모두 梯形棺이다.[82] 무덤 M4는 하나의 棺에 부부를 넣은 雙人同棺合葬이며 棺은 梯形棺이다.[83] M3에서 "朱元柏太和七年"이라 새겨진 刻銘磚이 출토되어 M3은 孝文帝 太和 7년(483)에 매장되었고, M4의 연대도 대체로 北魏 太和 연간으로 추정된다.[84] 이 두 무덤에서 발견된 3具의 棺은 모두 梯形棺이다. M3과 M4는 朱氏의 가족묘이며, 咸陽文林小區에서 발견된 十六國時代前期 朱氏家族墓地와 관련이 있고 咸陽文林小區에서 西安市 동쪽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85] M4에서 출토된 細頸陶壺는 山西大同南郊 北魏時代 鮮卑墓[86]에 부장된 同類의 器物과 形製와 裝飾상 매우 유사하며 이는 朱氏家族이 北魏時代에 점차 鮮卑文化의 영향을 받아들였음을 뜻한다.[87]

西安市의 북쪽에 위치하며 北魏時代 涇州 新平郡 三水縣과 高平縣 사이에 위치한 陝西省 旬邑縣 張洪鎭 原底社區 西頭村에서 발견된 西頭遺址의 무덤에서 순장된 말의 사체와 馬具, 梯形棺이 발견되었다.[88] M39 墓道에서 출토된 馬骨의 편년은 1,500년+30년이며, 교정 후에 483~490년(95.4%) 또는 536~644년(95.4%)로 추정된다. 陶壺 M39:4의 形製는 大同七里村 M22:2, 大同雁北師院 M52:9와 거의 일치하는데, 뒤의 양자는 紀年墓에서 출토되었는데 무덤의 연대는 5세기 말이다.[89] 따라서 이 무덤은 北魏平城時代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무덤 안에서 墓主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는데 순장한 말과 馬具의 유물이

78)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考古研究所,「山西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M7·M9)發掘簡報」,『文物』2015-12, 2015, 9왼쪽~9오른쪽.
79)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5, 9쪽.
80)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2015, 12오른쪽, "大代和平二年歲在辛□」三月丁巳朔十五日辛未」□□(散)騎常侍選部□□」安樂子梁拔胡之墓."
81)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西安市東郊東小寨村兩座北魏墓葬發掘簡報」,『文博』2018-5, 2018, 3왼쪽.
82)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8, 6왼쪽.
83)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8, 9오른쪽.
84)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8, 13왼쪽~13오른쪽.
85)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8, 13오른쪽~14왼쪽.
86)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博物館,『大同南郊北魏墓群』, 北京: 科学出版社, 2006.
87)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앞의 논문, 2018, 14왼쪽.
88)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陝西省考古研究院·旬邑縣文化和旅遊局,「陝西旬邑縣西頭遺址廟地點北魏墓M39的發掘」,『考古』2023-2, 2023, 42왼쪽~42오른쪽.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木棺은 동서 방향으로 횡으로 배치되었는데 평면은 梯形이며 길이 약 1.65m이고 동쪽 끝이 조금 좁고 너비는 약 0.4m이고 서쪽 끝이 조금 넓다.
89)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 等, 위의 논문, 2023, 50오른쪽.

주목된다. 말의 순장과 實用 馬具는 北魏時代 무덤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90] 짐승을 순장시키는 풍속은 烏丸과 鮮卑 등 유목민의 葬俗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은 유목민의 葬俗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延安市 李渠鎭 馮莊鄕에서 발굴된 北魏平城時代 무덤[91] 가운데 M18[92]과 M23[93]는 梯形木棺이며 雙耳의 鐵鍑이 출토되었다. 이 鐵鍑은 鮮卑人이 사용하던 鐵鍑이며 내몽골자치구에서 널리 발견되었다.[94] M18에서 출토된 陶罐은 匈奴에서 유래하여 鮮卑人이 계승하였다.[95] 이 지역은 16국시대 夏가 있던 오르도스의 동쪽이며, 北魏가 夏를 정복한 후 설치했던 夏州의 동쪽 지역이다. 따라서 M18과 M23의 墓主는 匈奴 또는 鮮卑 계통의 유목민일 것이다. 또 寧夏固原漆棺墓[96]에 棺木이 존재하지 않지만, 殘存한 棺蓋板漆皮와 棺側板漆皮는 모두 앞이 넓고 뒤가 얕은 형성인데, 이 棺 역시 大頭小尾式인 梯形棺이다.[97] 寧夏回族自治區 固原市는 北魏時代 高平鎭이었으며, 당시에 柔然 등 이민족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墓主는 유목민의 葬俗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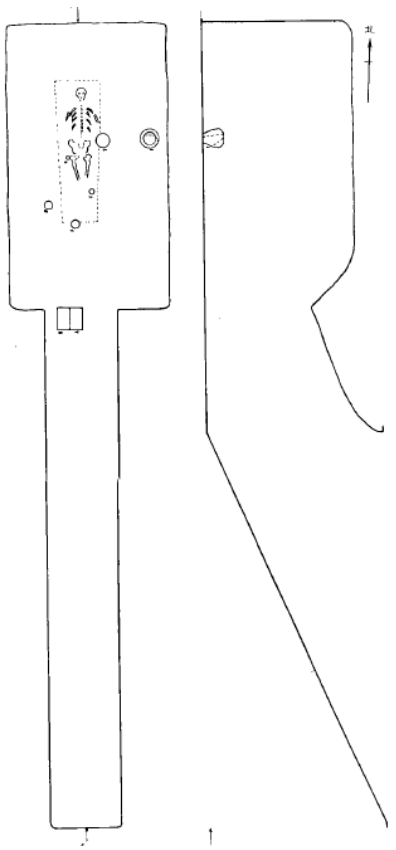
1996년 正月에 洛陽 高新技術開發區에서 春都集團 飮料廠의 건설 공사에서 北魏墓 1座를 발굴했는데 編號는 96GM287이다. 이 墓의 벽돌에 새겨진 "太和十二年二月三十日"의 문구를 통해 이 무덤이 北魏 孝文帝 太和 12년(488)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墓室 가운데에 남아 있는 棺灰 흔적의 길이는 1.7m, 앞의 너비는 0.7m, 뒤의 너비는 0.9m이다.[98] 즉 梯形棺이다.

아래의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무덤도 梯形棺이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刻銘磚에 "太原郡狼孟縣董富妻郭暮"라고 새겨졌다.[99] 이는 이 무덤의 묘주가 太原郡 狼孟縣 출신인 董富의 妻 郭氏임을 시사한다. 太和 12년(488) 당시 洛陽은 아직 北魏의 수도가 아니었고 무덤이 출토된 지역은 漢魏洛陽故城에서 서쪽에 위치했으며 현재의 洛陽市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北魏平城時代 洛陽의 무덤에서 梯形棺과 燒物葬이라는 유목민의 葬俗이 발견된 것은 이 지역에 鮮卑 등이 살았거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을 뜻한다. 漢人인 董富 일족도 주변의 鮮卑 등 유목민의 영향을 받아 鮮卑葬俗인 梯形棺으로 매장하였을 것이다.

漢人이 鮮卑文化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孝文帝의 洛陽遷都 이전에 洛陽의 인구는 적었다. 明元帝 시기(409~418) 豫州刺史가 되어 洛陽에 머물렀던 于栗磾의 列傳에 따르면 당시 洛陽은 오랫동안 변방이었고 들에는 연기가 없을 정도로 황폐한 지역이었다.[100] 太武帝 시기 安頡과 司馬靈壽

90) 西北大學文化遺産學院 等, 위의 논문, 2023, 51왼쪽.
91) 陝西省考古研究院 · 延安市文物保護研究所, 「陝西沿岸寶塔區馮莊鄕北魏墓葬發掘簡報」, 『考古與文物』 2020-2, 2020, 10왼쪽~15오른쪽.
92) 木棺 1具가 있는데 동쪽이 넓고 서쪽이 좁은데 棺의 길이는 2.16m, 동쪽 너비 0.74m, 서쪽 너비 0.64m이다(陝西省考古研究院 等, 위의 논문, 2020, 12오른쪽). 이는 梯形木棺이다.
93) 木棺의 길이는 1.8m, 동쪽 너비 0.72m, 서쪽 너비 0.48m이다(陝西省考古研究院 等, 위의 논문, 2020, 13오른쪽). 이는 梯形木棺이다.
94) 卜揚武 · 程璽, 「內蒙古地區銅(鐵)鍑的發現與初步研究」, 『內蒙古考古文物』 1995-10, 1995.
95) 孫機,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493쪽.
96) 寧夏固原博物館, 『鼓圓北魏墓漆棺畫』, 寧夏人民出版社, 1988.
97)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等, 앞의 책, 2006, 499~500쪽.
98)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 石戰軍, 「北魏董富妻郭氏墓」, 『中原文物』 1996-2, 1996, 100왼쪽~100왼쪽.
99)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 石戰軍, 위의 논문, 1996, 100오른쪽.
100) 『魏書』 卷31 于栗磾傳, 736쪽, "遷豫州刺史, 將軍如故, 進爵新安侯. 洛陽雖歷代所都, 久爲邊裔, 城闕蕭條, 野無煙火. 栗磾

등의 北魏軍은 虎牢, 滑臺, 洛陽 세 성을 점령하고 3城의 백성 500여 家를 黃河 이북의 河內로 遷徙하였다.[101] 500여 家는 3城 전체의 인구는 아니었겠지만, 黃河 이북으로 끌고 간 백성이 1城 당 170여 家였다고 한다면 太武帝 시기에도 洛陽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02] 洛陽을 지키기 위해 鮮卑를 비롯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北魏軍이 洛陽에 주둔했다면, 漢人보다 非漢族 이민족의 수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漢人들이 洛陽에 주둔하거나 거주한 이민족들로부터 鮮卑文化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림 8〉 郭氏墓平·剖面圖[103]

2. 北魏洛陽時代 梯形棺

孝文帝가 '漢化政策'을 취했다던[104] 北魏洛陽時代에도 北魏 石棺에서 大頭小尾式, 즉 梯形棺이 발견되었다.[105] 洛陽邙山延昌四年(515)宣武帝景陵,[106] 偃師杏園熙平元年(516)元睿墓,[107] 大同東郊永平元年(508)元淑墓[108]에서 大頭小尾의 棺木, 즉 梯形棺이 발견되었다.[109] 이 가운데 앞의 두 무덤은 洛陽과 그 주변에서 발굴된 무덤이고 元淑墓는 이전의 수도였던 平城에서 발굴되었다. 洛陽北魏墓의 발굴보고서에 棺의 모양을 서술하지 않았지만, 孝文帝의 洛陽遷都 이후에 洛陽에서 鮮卑 葬俗인 梯形棺이 발견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宣武帝[110]와 元睿를 대표로 하는 北魏皇室 일

刊闢榛荒, 勞來安集. 德刑旣設, 甚得百姓之心."

101) 『魏書』 卷37 「司馬叔璠傳附靈壽傳」, 861쪽, "劉義隆侵境, 詔靈壽招引義士, 得二千餘人, 從西平公安頡破虎牢·滑臺·洛陽三城, 徙五百餘家入河內."

102) 崔珍烈, 「북위(北魏)후기의 국제도시 낙양(洛陽)-종족 분포와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7: 2, 2015, 139쪽; 崔珍烈, 「北魏 後期 '국제도시' 洛陽과 출현 배경」, 『中央아시아硏究』 22: 1, 2017, 2~3쪽.

103)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石戰軍, 위의 논문, 1996, 101왼쪽, 圖一 郭氏墓平·剖面圖.

104) 국내에서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대한 반론은 崔珍烈, 「北魏後期 洛陽거주 胡人들의 생활과 문화-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재검토-」, 『中國古中世史硏究』 24, 2010, 379~434쪽 참조.

105) 黃明蘭 編著, 『洛陽北魏世俗石刻線畫集』, 人民美術出版社, 1987.

10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洛陽漢魏城隊 等, 「北魏宣武帝景陵發掘報告」, 『考古』 1994-9, 1994.

10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河南二隊, 「河南偃師杏園村的四座北魏墓」, 『考古』 1991-9,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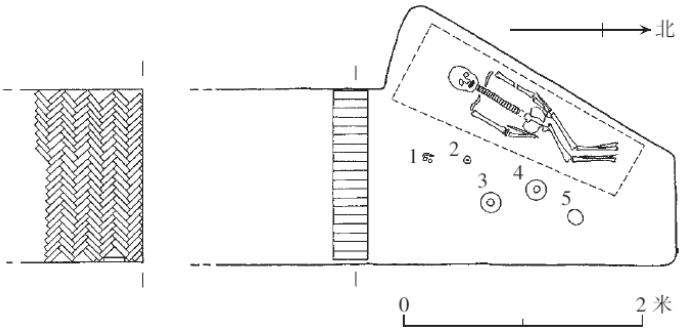
108) 大同市博物館, 「大同東郊北魏元淑墓」, 『文物』 1989-8, 1989; 王銀田, 「元淑墓誌考釋-附北魏高琨墓誌考-」, 『文物』 1989-8, 1989.

109)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等, 앞의 책, 2006, 499쪽.

110) 宣武帝 景陵의 墓壁과 墓頂 表層磚의 밖에도 그을름과 광택이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洛陽漢魏城隊·洛陽古墓博物館, 「北魏宣武帝景陵發掘報告」; 沈睿文, 「夷俗幷從-安伽墓和北朝燒物葬-」, 『中國歷史文物』 2006-4, 2006, 6왼쪽).

부 성원들이 여전히 鮮卑의 葬俗을 유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2009년에 孟津縣 平樂鎭 朱倉村에서 발견된 北魏時代 무덤인 刀形單室土洞墓 M3의 墓室 서측에서 발견된 單棺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데 길이 2.04m, 너비 0.48~0.72m이다.[111] 아래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梯形棺이다.



图六 M3 平面图

1、3. 陶罐 2. 瓷壺 4. 陶壺 5. 陶碗

〈그림 9〉 洛陽孟津朱倉北魏墓 M3平面圖[112]

발굴보고서에서 M3의 墓主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M3의 墓主가 官吏 등 지배층이 아님을 시사하며 부장품도 平沿壺와 盤口壺였다.[113] 즉 洛陽의 漢人 평민들도 梯形棺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北魏洛陽時代에 洛陽과 平城 이외의 지역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洛陽의 서쪽인 弘農郡에 묻힌 楊舒[114]의 무덤에서 梯形棺이 발견되었다.[115] 또 山西省 侯馬市 高村鄕 虎祁村에서 발견된 北魏時代 무덤 M1007은 北魏 熙平元年(516)에 37세의 나이에 죽은 裴經의 무덤이다.[116] 따라서 北魏洛陽時代에 漢人의 대표적인 門閥인 河東裴氏의 裴經이 鮮卑의 葬俗인 梯形木棺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117] M1007과 주변

이는 死者가 생전에 사용하던 器物을 불사르는 烏丸 · 鮮卑의 장례 풍습이다(최진열, 「北魏 平城時代 胡人들의 생활과 습속 - 胡俗 유지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 『東方學志』 149, 2010, 283~326쪽).

111)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洛陽孟津朱倉北魏墓」, 『文物』 2012-12, 2012, 41왼쪽~41오른쪽.

112)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2, 40왼쪽, 圖六 M3平面圖.

113)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12, 45왼쪽 및 47오른쪽.

114) 墓誌銘에 따르면 楊舒는 延昌 4년(515) 九月 九日에 洛陽縣 依仁里에서 병으로 죽었고 熙平 2년(517) 九月 二日에 본적인 華陰縣의 舊塋에 묻혔다(「魏故鎭遠將軍華州刺史楊(舒)軍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天津古籍出版社, 1992),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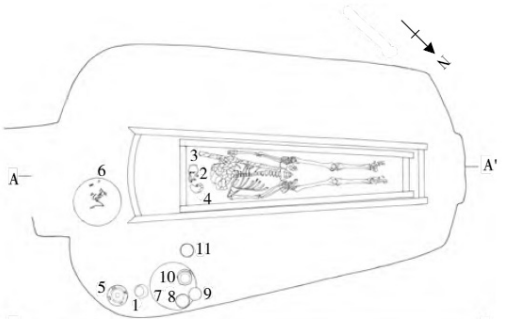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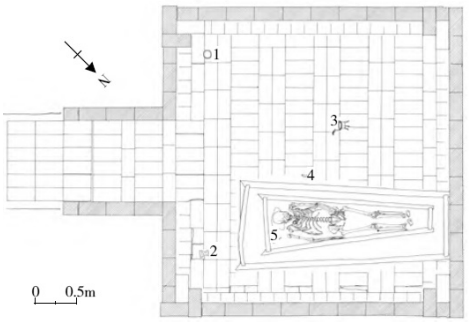
115) 棺槨의 흔적을 보면 木槨의 길이 2.6m, 너비 0.7~0.9m이며 槨의 두께는 10㎝이다. 木棺은 작으며 木槨 안에 있다(崔漢林 · 夏振英, 「陝西華陰北魏楊舒墓發掘簡報」, 『文博』 1985-2, 1985, 7왼쪽). 木棺이 에워싼 木槨의 모양과 비슷하므로 이 棺은 梯形木棺이다.

116) 「裴經墓誌」(山西省考古研究院, 「山西侯馬虎祁北魏墓(M1007)發掘簡報」, 『文物』 2021-2, 2021, 21왼쪽), "後魏河東裴君諱經字仲略之銘. 解褐爲宣武皇帝之元弟京兆王常侍, 出爲齊州」征虜府中兵參軍, 入爲奉朝請, 後爲孝文皇帝之少弟司州牧高陽中正, 除宜陽猗氏二縣令, 入爲襄威將軍司徒府鎧曹參軍, 春秋世有七, 以熙平元年丙申歲」正月五日而卒于官."

117) 山西省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21, 21왼쪽.

에 위치한 M1006, M1008, M1024의 배열은 순서가 있고 분포와 무덤 形製, 출토 器物을 분석하면 동일 가족이다.[118] 즉 M1006, M1008, M1024에서 墓誌銘이나 墓主의 이름과 무덤 조성 연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裴經 일족의 무덤임은 분명하다. M1006의 棺은 大頭小尾狀이다. 즉 棺의 길이는 3m, 너비는 0.65~1.2m, 殘高 0.7~1m이다. 內棺은 길이 2.29m, 너비 0.44~0.77m이고 殘高 0.18~0.53m이다.[119] M1008의 棺도 頭大尾小狀이며 外官은 길이 2.58m, 너비 0.82~1.07m, 殘高 0.27m이다. 內棺은 길이 2.1m, 너비 0.32~0.73m, 殘高 0.17m이다.[120] 이 발굴보고서에서 棺의 모양이 大頭小尾狀(頭大尾小狀)이라고 표기했지만, 〈표 9〉 M1006과 M1008 棺의 모양을 보면 梯形棺이다. 즉 裴經의 무덤(M1007)뿐만 아니라 裴經의 일족의 무덤인 M1006, M1008도 梯形棺을 사용하였다. 이는 魏晉南北朝·隋唐時代의 門閥 가운데 하나인 河東裴氏 일족 중 일부가 鮮卑의 葬具인 梯形棺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표 9〉 M1006과 M1008 棺의 모양

M1006墓室平·剖面圖[121]	M1008墓底平面圖[122]
	

1976년 山西省 榆社縣 河峪鄕 河窓村에서 발견된 北魏畫像石棺의 棺石은 幇板 2개이며 幇板은 길이 220㎝, 너비 80㎝, 두께 10㎝이다.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며 大頭는 蹄形이다.[123] 이는 梯形 石棺인데 梯形木棺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墓主人의 姓은 알 수 없으나 이름은 "方興"이다. 그는 神龜 연간에 太和 연간(477)에 應川太守에 임명되었고 熙平 연간(516) 綏遠將軍 郡太守에 임명되었다.[124] 榆社縣은 太原의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北魏時代에 幷州 鄕郡 鄕縣에 속했다. 따라서 方興은 이곳에 살았던 豪族이었을 것이다.

118) 山西省考古研究院, 「山西侯馬虒祁北魏墓發掘簡報」, 『文物季刊』 2022-3, 2022, 11왼쪽 및 18왼쪽.
119) 山西省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22, 12왼쪽.
120) 山西省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22, 16오른쪽.
121) 山西省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22, 12오른쪽.
122) 山西省考古研究院, 위의 논문, 2022, 15왼쪽.
123) 王太明·賈文亮, 「山西榆社縣發現北魏畫像石棺」, 『考古』 1993-8, 1993, 767왼쪽.
124) 王太明·賈文亮, 위의 논문, 1993, 767왼쪽.

왼쪽 幇板 바깥 중앙에 墓主人 생전의 出行圖와 狩獵圖가 있다. 幇板 전반부에 精美한 雜技表演圖가 새겨 있다. 高統靴를 신고 燈籠褲를 입은 大力士가 杆을 들고 있고 杆頂에 5인의 藝人이 연기하고 있고 杆 아래에 북을 타는 사람이 있으며 9개의 流星球가 공중에 날아다니며 생동한 雜技舞蹈를 표현하였다.[125] 出行圖와 狩獵圖는 騎馬와 尙武를 숭상하는 鮮卑文化의 영향을 받았고 雜技舞蹈는 西域文化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8~12월에 발굴된 山西萬榮西思雅北魏薛懷吉墓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 蓋板 평면은 梯形에 가깝다고 서술하였다.[126] 墓主 薛懷吉은 裴經처럼 대표적인 河東의 지방세력이었던 河東薛氏 출신이며, 孝明帝 시기인 正光 4년(523)에 죽었다.[127] 이는 河東 지역의 漢人門閥이 鮮卑 葬俗인 梯形棺을 수용했음을 시사한다.

西安市 南郊 長安區 韋曲鎭 塔坡村의 京科花園小區에서 발견된 5座墓 가운데 M5 墓室 북측에 있는 生土臺 위의 木棺의 길이는 2m, 너비는 0.45~0.6m이다.[128] 棺의 너비가 다른 것은 시체의 머리쪽이 길고 다리쪽이 짧은 역사다리꼴, 즉 梯形棺이었기 때문이다. M5에서 발견된 墓誌에 따르면 墓主는 北魏 永熙 3년에 죽은 韋乾이다.[129] 韋乾은 京兆郡 杜縣 사람이며, 그의 18世祖는 前漢의 丞相을 역임한 韋玄成이다. 韋乾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15세에 奉朝請(從第七品下)에 임명되었고 20세 이전에 諫議大夫(從第四品下)로 승진하였다.[130] 關中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세력인 京兆韋氏 출신인 韋乾이 鮮卑 葬俗인 梯形棺을 사용했음은 일부 漢人들이 鮮卑의 葬俗을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M2 北魏 韋鮮玉墓의 墓室 偏西에 木棺 1具가 놓여 있는데 棺 흔적 남북 한계는 분명한데 길이 2m이다. 동서 방향은 도굴로 인해 한계가 불명한데 너비는 약 1.2~1.3m였다.[131] 발굴보고서의 서술이 불분명하지만 梯形棺의 가능성이 있다.

Ⅳ. 時代未詳 梯形棺

1장과 2장에서 16국시대와 北魏時代 梯形棺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무덤의 연대를 알 수 없는 무덤이 있다. 본 장에서는 16국시대 또는 北魏時代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출토된 梯形棺을 살펴본다.

---

125) 王太明 · 賈文亮, 위의 논문, 1993, 767왼쪽.

126) 山西省考古研究院 · 運城市文物保護中心 · 萬榮縣文化和旅遊局, 「山西萬榮西思雅北魏薛懷吉墓發掘簡報」, 『文物』 2023-1, 2023, 11왼쪽.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棺의 길이는 2.45m, 頭端 너비 0.94m, 拱高 0.24m, 足端 너비 0.76m, 拱高 0.2m이다. 石材의 두께는 약 7㎝이다. 圖五 M1石棺結構圖를 봐도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梯形棺임을 알 수 있다(山西省考古研究院 等, 위의 논문, 2023, 7쪽).

127) 『魏書』 卷61 「薛安都傳」에 따르면 薛懷吉은 北魏에 항복한 薛安都의 從祖弟 薛眞度의 庶長子였다(『魏書』 卷61 「薛安都傳附眞度傳」, 1357쪽). 墓誌銘에 따르면 그는 正光 4년(523)에 汾州 下宅에서 53세의 나이로 죽었다(위와 같음, 30오른쪽).

128)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南郊北魏北周墓發掘簡報」, 『文物』 2009-5, 2009, 21왼쪽 및 25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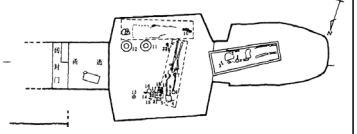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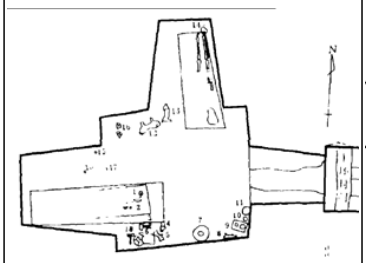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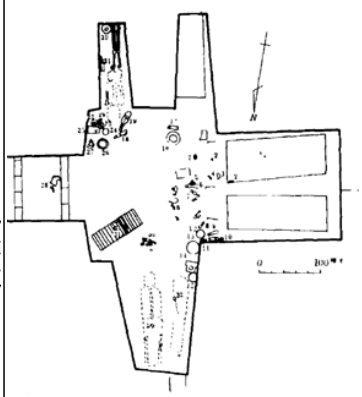
129)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위의 논문, 2009, 48왼쪽.

130) 「韋乾墓誌」(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위의 논문, 2009, 77왼쪽), "君諱乾, 字德政, 京兆杜人也, 漢丞相玄成十八世孙. …… 年十五辟奉朝請, 爰自中禁, 識者嘆貴之, 以軍勳超遷諫議大夫."

131) 陝西省考古研究院, 「西安南郊韋曲北塬北朝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2015-5, 2015, 13오른쪽.

咸陽師專專科學校는 咸陽 頭道塬 위의 文林路 북쪽에서 11座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西晉北朝墓 10座, 당묘 1座(이미 발표)를 발굴하였다.[132] 발굴보고서에서 北朝前期 北魏 孝文帝 遷洛 이전으로 비정한 磚室墓의 M9 墓室 안 동서 방향으로 3棺의 길이는 1.55m, 너비는 0.45m이다.[133] M9와 동일한 시기로 비정된 M11의 後室에서 발견된 棺은 동서 방향이고 길이 1.92m, 너비 0.5~0.58m이다. 側室의 棺은 남북 방향이며 길이 1.4m, 너비 0.4~0.58m이다.[134] 16국시대 또는 北魏時代(北朝前期)로 비정된 M5의 後室 평면은 長方形이며 棺이 있는데 남쪽의 棺은 길이 1.7m, 너비 0.65~0.7m, 棺板의 두께는 4.5~5㎝이다. 북쪽의 棺 길이는 1.7m, 너비 0.55~0.58m이며 棺板 두께는 4㎝이다. 北側室에 人骨 2具인데 棺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쪽은 여성이며 동쪽의 것은 남성인데 25~30세이다. 南西側室에 棺木 1具가 있는데 이미 썩어 盜가 되었으며 길이 1.36m, 너비 0.4~0.5m이고 人骨을 발견되지 않았다.[135] 이상에서 서술한 세 무덤에서 발견된 7개의 罐은 아래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너비의 길이가 다른 긴역사다리꼴 모양의 관, 즉 梯形棺이다.

〈표 10〉 咸陽師專西晉北朝墓와 梯形棺

圖二 M9平 · 剖面圖[136]	圖四 M11平 · 剖面圖[137]	圖六 M5平 · 剖面圖[138]
		

咸陽師專 M9와 M11는 北魏 孝文帝의 洛陽遷都 이전인 北朝前期로 추정되는 무덤이며 M5 역시 北朝前期로 추정되며 M5에서 출토된 後趙의 豊貨錢 때문에 16국시대로도 비정된다.[139] M5, M9, M11 墓主의 種族

132)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咸陽師專西晉北朝墓清理簡報」, 『文博』 1998-6, 1998, 3쪽.
133)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1998, 4쪽.
134)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1998, 5~6쪽.
135)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1998, 7~8쪽.
136)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1998, 4쪽.
137)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1998, 6쪽.
138)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1998, 8쪽.

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다. 현재의 咸陽市가 北魏時代에 속한 馮翊郡에 이민족이 많이 살았다. 예컨대 馮太后 臨朝稱制 시기 활동한 王遇가 馮翊郡 李潤鎭의 羌人이었다.[140] 馮翊郡 李潤鎭은 洛陽遷都 이후인 宣武帝 시기까지 羌人과 漢人의 雜居지역(史書 표현으로 "羌魏兩民之交")이었다.[141] 따라서 이 무덤의 주인은 漢人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羌 등 이민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Ⅴ. 결 론

본문에서 16국시대와 北魏時代 梯形棺의 분포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梯形棺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拓跋部 등 陰山 · 漠南 지역(현재의 내몽골자치구)을 제외하면, 16국시대 梯形木棺은 遼西 · 遼東 지역에서 43座, 鄴 지역(安陽 孝民屯)에서 4座, 洛陽에서 1座, 長安과 그 주변에서 13座(19棺), 河西回廊에서 2座가 출토되었다. 北魏平城時代에 수도인 平城에 梯形棺이 다수 출현하였고 盛樂 일대(현재의 呼和浩特 美岱村 北魏初期 무덤[142])과 夏州, 高平鎭에서도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北魏洛陽時代에 수도 洛陽(3件, 宣武帝와 元睿, 墓主 未詳)과 平城(1件, 元淑), 弘農郡(1건, 楊舒), 河東郡(4件, 裴經과 그 일족 2인, 薛懷吉), 京兆郡(2件, 韋乾, 墓主 未詳)에서 梯形棺이 발견되었다. 또 鄕郡(1件, 姓은 未詳이고 이름이 方興)에서 梯形 石棺이 출토되었는데, 이것도 梯形棺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6국시대에 黃河 유역 가운데 16국의 수도였던 鄴, 長安과 西晉의 수도였던 洛陽 등 주요 정치 도시에 梯形棺을 사용한 무덤이 있었다. 北魏平城時代에는 수도 平城에 집중하였으나 北魏洛陽時代에 수도 洛陽뿐만 아니라 弘農郡, 河東郡, 鄕郡, 京兆郡 등으로 확대되었다.

梯形棺은 鮮卑 등 非漢族 이민족들만 사용한 葬俗이 아니었다. 16국시대에 漢人의 무덤은 11座(崔遹, 馮素佛, 長安 지역의 朱氏家族墓)였고, 北魏洛陽時代에 8座(梯形石棺을 포함하면 9座)이었다. 무덤 형태나 葬俗의 변화를 居民 또는 지배세력의 교체로 해석하는 고고학의 기본명제를 수용하면, 漢人 무덤에서 보이는 梯形棺은 漢人이 鮮卑葬俗을 수용했던 증거이다. 梯形棺이 출토된 漢人 무덤의 부장품 등을 분석하면 鮮卑文化의 수용은 사람마다 다양했다. 예컨대 16국시대 後燕의 관리 崔遹은 梯形棺뿐만 아니라 부장품을 불태우는 鮮卑 葬俗에 따라 매장되었기 때문에 淸河崔氏인 崔遹은 생전에 鮮卑 風俗을 수용했을 것이다. 北燕의 王室 일족인 馮素佛은 戎夷의 풍속에 젖었다는 史書의 기록처럼 梯形棺, 머리의 東向, 무덤 안 동물 고기의 제사 등 烏丸 · 鮮卑의 매장 풍습에 따랐다. 北魏 熙平元年(516)에 37세의 나이에 죽은 河東裴氏 출신인 裴經

---

139)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1998, 20쪽.

140) 『魏書』 卷94 「閹官 · 王遇傳」, 2023쪽, "王遇, 字慶時, 本名他惡, 馮翊李潤鎭羌也. 與雷 · 党 · 不蒙俱爲羌中强族. 自云其先姓王, 後改氏鉗耳, 世宗時復改爲王焉. 自晉世已來, 恒爲渠長. 父守貴 爲郡功曹, 卒."

141) 『魏書』 卷19下 「安定王休傳附燮傳」, 518쪽, "謹惟州治李潤堡, 雖是少梁舊地, 晉 · 芮錫壤, 然胡夷內附, 遂為戎落. 城非舊邑先代之名, 爰自國初, 護羌小戍. 及改鎭立郡, 依岳立州, 因籍倉府, 未刊名實. 竊見馮翊古城, 羌魏兩民之交, 許洛水陸之際, 先漢之左輔, 皇魏之右翼, 形勝名都, 實惟西蕃奧府. ……」"

142)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1998.

의 무덤에서 梯形木棺뿐만 아니라 동물 순장 또는 동물의 고기를 무덤 안에 부장하는 鮮卑의 葬俗을 수용했던 유물이 발견되었다. 山西省 榆社縣 河峪鄕 河窓村에서 발견된 北魏畫像石棺의 무덤(墓主는 方興이며 姓은 未詳)에서 梯形木棺뿐만 아니라 鮮卑의 尙武的인 문화를 상징하는 出行圖와 狩獵圖, 西域文化의 영향을 받은 西域의 雜技 그림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十六國·北魏時代에 非漢族 이민족이 漢文化를 받아들여 동화(漢化)되었다는 동화론의 반례이며, 漢人들도 정도에 따라 유목민의 문화와 西域文化를 받아들였던 다문화 공존의 증거이다. 또 北魏洛陽時代에 梯形棺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河東裴氏와 京兆韋氏처럼 唐代 門閥이 되었던 지방세력의 일부가 鮮卑 葬俗을 받아들였던 점이 주목된다. 반면 단순히 梯形棺만이 보이는 무덤도 있다. 이는 漢人들의 鮮卑 葬俗 또는 문화 수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고는 漢族이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6국·北朝時代에 이민족만 일방적으로 漢文化를 받아들였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漢族도 유목문화(鮮卑文化)를 수용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北京: 中華書局, 1965).
『晉書』(房玄齡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魏書』(魏收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十六國春秋輯補』(崔鴻 撰, 湯球 輯補, 王魯一 · 王立華 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天津古籍出版社, 1992).

寧夏固原博物館, 『鼓圓北魏墓漆棺畫』, 寧夏人民出版社, 1988.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 山西省考古研究所 · 大同市博物館 編著, 『大同南郊北魏墓群』, 北京: 科學出版社, 2006.
孫危, 『鮮卑考古學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7.
遼寧省博物館 編, 『北燕馮素佛墓』, 北京: 文物出版社, 2015.
李逸友 · 魏堅 編,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一輯,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黃明蘭 編著, 『洛陽北魏世俗石刻線畫集』, 人民美術出版社, 1987.

崔珍烈, 「北魏後期 洛陽거주 胡人들의 생활과 문화 - 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재검토 -」, 『中國古中世史研究』 24, 2010.
崔珍烈, 「北魏 平城時代 胡人들의 생활과 습속 - 胡俗 유지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 『東方學志』 149, 2010.
崔珍烈, 「북위(北魏)후기의 국제도시 낙양(洛陽) - 종족 분포와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 『도시인문학연구』 7: 2, 2015.
崔珍烈, 「北魏 後期 '국제도시' 洛陽과 출현 배경」, 『中央아시아研究』 22: 1, 2017.

甘肅省敦煌縣博物館, 「敦煌佛爺廟灣五凉時期墓葬發掘簡報」, 『文物』 1983-10, 1983.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 高臺縣博物館, 「甘肅高臺縣駱駝城墓葬的發掘」, 『考古』 2003-6, 2003.
喬梁, 「山西原平北賈鋪東漢墓葬所見的北方草原文化因素」, 『考古與文物』 2015-2, 2015.
吉林省博物館文物隊 ·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吉林大安漁場古代墓地」, 『考古』 1975-6, 1975.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等, 「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鮮卑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札賚諾爾古墓群1986年清理發掘報告」,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
內蒙古文物工作隊, 「內蒙古札賚諾爾古墓群發掘簡報」, 『考古』 1961-12, 1961.
內蒙古文物工作隊, 「札賚諾爾古墓群發掘簡報」, 『考古』 1961-12, 1961.
內蒙古文物工作隊, 「內蒙古呼和浩特美岱村北魏墓」, 『考古』 1962-2, 1962.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清理簡報」,『考古』1965-6, 1965.
大同市考古研究所,「北魏大同二電廠北魏墓群發掘簡報」,『文物』2019-8, 2019.
大同市考古研究所,「山西大同御東新區御昌佳園北魏墓M113發掘簡報」,『考古與文物』2021-4, 2021.
大同市博物館,「大同東郊北魏元淑墓」,『文物』1989-8, 1989.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洛陽孟津朱倉北魏墓」,『文物』2012-12, 2012.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洛陽軸承廠十六國磚棺墓清理簡報」,『中原文物』1987-3, 1987.
穆崟臣,「"同化"與"異化": 三燕時期遼西走廊的民族融合與文化交流」,『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35: 6, 2014.
朴文英,「從馮素佛墓出土紡織品痕迹考察三燕時期遼寧地區的絲織業」, 遼寧省博物館 編,『北燕馮素佛墓』, 北京: 文物出版社, 2015(原載 「從馮素佛墓出土紡織品痕迹考察三燕時期遼寧地區的絲織業」,『遼寧省博物館館刊(2011)』, 遼海出版社, 2011).
潘行榮,「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葬」,『考古』1962-11, 1962.
卜揚武・程璽,「內蒙古地區銅(鐵)鍑的發現與初步研究」,『內蒙古考古文物』1995-10, 1995.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考古研究所,「山西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M7・M9)發掘簡報」,『文物』2015-12, 2015.
山西省考古研究院,「山西侯馬虒祁北魏墓(M1007)發掘簡報」,『文物』2021-2, 2021.
山西省考古研究院,「山西侯馬虒祁北魏墓發掘簡報」,『文物季刊』2022-3, 2022.
商春芳,「洛陽兩座鮮卑墓葬的檢討」,『石河子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0-2, 2016.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西安財政幹部培訓中心漢・後趙墓發掘簡報」,『文博』1997-6, 1997.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西安南郊北魏北周墓發掘簡報」,『文物』2009-5, 2009.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西安南郊清理兩座十六國墓葬」,『文博』2011-1, 2011.
陝西省考古研究院,「西安咸陽國際機場專用高速公路十六國墓發掘簡報」,『文博』2009-9, 2009.
陝西省考古研究院,「西安南郊韋曲北塬北朝墓發掘簡報」,『考古與文物』2015-5, 2015.
陝西省考古研究院・延安市文物保護研究所,「陝西沿岸寶塔區馮莊鄉北魏墓葬發掘簡報」,『考古與文物』2020-2, 2020.
孫機,「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沈睿文,「夷俗幷從－安伽墓和北朝燒物葬－」,『中國歷史文物』2006-4, 2006.
烏蘭察布盟文物工作站,「內蒙古和林格爾西溝子村北魏墓」,『文物』1992-8, 1992.
吳松巖,「盛樂・平城地區北魏鮮卑・漢人墓葬比較分析」,『北方文物』2008-4, 2008.
王成,「札賚諾爾圈河古墓清理簡報」,『北方文物』1987-3, 1987.
王銀田,「元淑墓誌考釋－附北魏高琨墓誌考－」,『文物』1989-8, 1989.
王太明・賈文亮,「山西榆社縣發現北魏畫像石棺」,『考古』1993-8, 199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十二臺鄉磚廠88M1發掘簡報」,『文物』1997-11, 199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朝陽王子墳山墓群1987年・1990年度考古發掘的主要收穫」,『文物』

1997-11, 1997.
劉謙,「遼寧義縣保安寺發現的古代墓葬」,『考古』1963-1, 1963.
張柏忠,「哲里木盟發現的鮮卑遺存」,『文物』1981-2, 1981.
張柏忠,「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葬」,『考古』1989-5, 1989.
張小舟,「北方地區魏晉十六國墓葬的分區與分期」,『考古學報』1987-1, 1987.
張英,「我國東北古代民族"毁器"習俗」,『北方文物』1990-3, 1990.
張志忠,「大同雲波路北魏石槨墓解讀」,『收藏家』2019-9, 2019.
田立坤,「三燕文化遺存的初步研究」,『遼海文物學刊』1991-1, 1991.
田立坤,「科左後旗新勝屯鮮卑墓地調查」,『文物』1997-11, 1997.
錢玉成 · 孟建仁,「科右中旗北瑪尼吐鮮卑墓群」,『內蒙古文物考古文集』1, 北京: 中國大百科全書, 1994.
鄭隆,「內蒙古札賚諾爾古墓群調查記」,『文物』1961-9, 1961.
趙菲,「內蒙古中部地區的北魏墓葬」,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6.5.
程義,「關中唐代墓葬初步研究」, 西北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趙越,「內蒙古額右旗拉布達林發現鮮卑墓」,『考古』1990-10, 199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工作隊,「內蒙古巴林左旗南楊家營子的遺址和墓葬」,『考古』1964-1, 196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城隊 等,「北魏宣武帝景陵發掘報告」,『考古』1994-9, 199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安陽孝民屯晉墓發掘報告」,『考古』1983-6, 198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南二隊,「河南偃師杏園村的四座北魏墓」,『考古』1991-9, 1991.
陳大爲,「遼寧北票房身村晉墓發掘簡報」,『考古』1960-1, 1960.
陳大爲 · 李宇峰,「遼寧朝陽後燕崔遹墓的發現」,『考古』1982-3, 1982.
崔漢林 · 夏振英,「陝西華陰北魏楊舒墓發掘簡報」,『文博』1985-2, 1985.
何培,「唐代以前的梯形棺」, 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咸陽師專西晉北朝墓清理簡報」,『文博』1998-6, 1998.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陝西咸陽市頭道塬十六國墓葬」,『考古』2005-6, 2005(b).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陝西咸陽市文林小區前秦朱氏家族墓的發掘」,『考古』2005-4, 2005(a).
興和縣文物普查隊,「興和縣糾八溝村鮮卑墓」,『內蒙古文物考古』1990-1 · 2, 1990.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7일에 투고되어,
2023년 6월 16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7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Xianbei-style Trapezoid Coffin in the Sixteen Kingdoms and Northern Wei Period

Choi, Jinyeoul*

This thesis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patterns of trapezoid coffins in the 16th kingdom period and the Northern Wei period.

The trapezoid coffin is a unique funeral custom of the Xianbei and Wuhuan People. The Xianbei-style trapezoid coffins in the Sixteen Kingdoms period were excavated from 43 sites in the Liaoxi and Liaodong regions, Yangdun, Zhaoyang, Chang'an, and the Corridor of Hexi. They were excavated in the commanderies of Hongnong, hedong, Jingzhao as well as Pengcheng, present Dadong, Shanzi Province, and Luoyang, the capital of Northern Wei. Not only Non-chinese people including Xianbei, Wuhuan, Xianbei and Wuhuan Xiongnu People, but also a sort of Chinese ruling-class, including Cui Yu, Fenf Sufo, Fei Jing, The Family of Zhou, Fang Xing used the Xianbei-style trapezoid coffins. The Xianbei-style grave goods were excavated from the tombs of Fei Jing and Fang Xing, which meant some persons of Chinese ruling-clas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Xianbei culture and the culture of Western Region.

This study breaks the stereotype that the Chinese people did not accept the culture of foreign peoples and that only the foreign peoples unilaterally accepted the Chinese cul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Sixteen Kingdoms and Northern Wei, and discovered and introduced the fact that the Chinese people also accepted the nomadic culture including Xianbei culture. It has research significance.

[Keywords] trapezoid coffin, Cui Yu, Fenf Sufo, Fei Jing, The Family of Zhou, Fang Xing, the Existence of multi-culture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